



녹색 정치에는 조국이 없다

-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 **Global Greens Congress** 참가기

김찬휘 녹색당 대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에서 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열렸다. 세계 녹색당 Global Greens은 녹색 정당 및 운동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세계 최초의 ‘녹색’ 정당은 1972년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창당한 United Tasmania Group UTG인데, 그 후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각지에서 녹색 정당의 설립이 빠르게 이어졌고 1980년에는 독일녹색당 Die Grünen이 창당되었다.

이에 각국 녹색당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최초의 지구 녹색당 회의가 열렸다. 그때 채택된 성명서의 시작은 녹색당이 ‘정치적 힘’으로 전환될 때에만 지구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환경정당에 투표할 때에만 정부는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녹색당의 국제적 연대는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세계녹색당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제1차 총회는 세계녹색당헌장 Global Greens Charter을 채택하고 6개항의 핵심 가치를 승인 하였는데, 이로써 전 세계의 녹색당이 함께 지키고 실천해야 할 대원칙이 천명된 것이다. ① 생태적 지혜 ② 사회정의 ③ 참여민주주의 ④ 비폭력 ⑤ 지속가능성 ⑥ 다양성 옹호가 그것이다.

결국 세계녹색당이란 이 6대 가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녹색당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세계녹색당 내에는 다시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미주녹색당연합, 아프리카녹색당연합, 유럽녹색당 등의 대륙별 연합이 존재하며, 세계녹색당총회가 열리면 대륙별 연합 총회도 함

게 열린다. 1차 총회가 호주, 2차 총회가 브라질, 3차 총회가 세네갈, 4차 총회가 영국에서 열렸으니 각 대륙별 연합에서 한 번씩 열린 셈이며, 아시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총회는 총회 개최부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총회가 2년 연기되었으며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로 비행기를 타고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인터넷 상황의 격차와 통신의 불안정성, 시차의 문제, 그리고 온라인 회의 진행시 발생하는 언어적 장벽과 비언어적 소통의 배제 등의 문제가 고려되었다. 결국 오프라인 참여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최초로 오프라인+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행사를 열게 되었다. 이런 고민이 있었기에, 아마도 이번 총회가 마지막 오프라인 총회가 될 수도 있다.

드디어 6월 8일의 아침이 밝았다. 총회 복도에는 기후위기 시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과 식물들의 종이 조형물이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첫 행사는 오전 10시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의 포럼이었다. 포럼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의 선주민 조직인 First Nations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시에 개회식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3박4일의 총회 행사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 84개국 700여 명의 녹색당원들이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수십 개의 세션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세션들로 ‘탈성장과 녹색정치’, ‘그린 AI: AI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 ‘에코사이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법적 체제’, ‘녹색 경제’, ‘후쿠시마와 태평양의 핵 폐기물: 핵은 답이 아니다’, ‘글로벌 그린즈: COP, UN, 그리고 국제적 영향’, ‘생물다양성’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 법제화와 관한 논의는 매우 의미가 컸다. 에코사이드의 정의는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손상, 파괴 또는 손실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평화로운 향유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코사이드를 국제형사재판소의 다섯 번째 ‘국제 범죄’로, 혹은 국가 법률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뒤에 숨은 주요 환경 파괴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에코사이드 세션에서는 ‘Stop Ecocide International’의 창립자인 조조 메타Jojo Mehta, 벨기에 생태당 국회의원 사무엘 코골라티Samuel Cogolati, 전 브뤼셀 환경장관 에블린 하위테부르크Evelyne Huytebroeck, 성공회대 황준서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일본 녹색당원은 후쿠시마 사고가 에코사이드라 말했고, 제주의 녹색당원은 강정 해군기지도 에코사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는 마지막 날 우크라이나 카흐카Kakhovka 지역의 댐 폭파와 관련된 생태적 위기를 ‘에코사이드’로 규정하는 긴급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는 현장 개정을 포함해 에코사이드, 기후비상사태, AI, 생물다양성, 동물권, 여성·청년·아동·선주민·GBTQ의 권리 등에 관한 19개의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했다. 특히 호주녹색당과 일본녹색당의 제안으로 진행된 ‘태평양의 핵폐기물 위협’ 결의안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25만여t이 태평양으로 배출되도록 허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규탄”하며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 연안 주민들의 건



강과 태평양의 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육상에 저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을 기초로 6월 30일 한국녹색당과 일본녹색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공동선언문과, 이에 대한 7월 8일의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의 서명 승인이 이어졌다.

국제적 행사의 백미는 ‘만남’이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의 녹색 정치인과 기후 운동가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 르완다 민주녹색당 대표 프랭크 하비네자(Frank Habineza)를 잊을 수 없다. 2018년 9월 그는 다른 녹색당원 한 명과 함께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르완다의 물과 위생, 환경,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서 영국과 미국이 자행하는 목재 남벌을 폭로하고 이를 지원하는 르완다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실제로 민주녹색당의 부대표가 2010년 비참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늘 웃고 있었다. 하비네자를 응원하며 그의 안전과 행복을 빈다.

촉촉한 총회 기간의 일정 속에서도 한국녹색당 대표단은 잉글랜드웨일스녹색당, 일본녹색당과의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잉글랜드웨일스녹색당과의 간담회는, 2023년 5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240명에서 481명으로 늘린 녹색당의 선거운동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일본녹색당과의 간담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한 자리였다. 간담회는 약속되었던 시간을 훌쩍 넘어서 진행되었고, 진지하면서도 애정 넘치는 녹색당만의 힘과 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한국녹색당 전당대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당대회는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생명체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잊혀진 이름’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김반장과 원디시티’의 흥겨운 레게음악과 함께 신명나는 파티와 각 지역당의 행렬이 이어졌다. 각 정당에서 온 대표님들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전당대회를 즐겼다. 2부는 조천호 박사, 홍세화 선생, 김주은 전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전국의 당원들의 자유발언들이 이어졌다. 나는 왜 녹색당원인가, 녹색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함께 묻고 함께 대답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창당 이후 처음 진행된 전당대회… 가슴이 열리고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정말 녹색당다운 전당대회였다.

11일 일요일, 총회는 ‘한국 선언’을 채택하고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총회의 주요

참가자들과 한국녹색당 대표단은 월정사로 이동하여 템플 스테이를 같이 하고 숲길을 걸으면서 뜻 깊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

기후위기가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들과 UN 등 국제기구 수 십 년간 무 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그린즈는 국제적 연대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세계적 연대체이다. 그런 만큼 녹색당과 녹색당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 또한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그린즈 대사이자 전 호주녹색당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밀네Christine Milne 는 “강대국과 대기업과 군대와 같은 조직의 세계화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녹색당의 연결도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처럼 녹색 정치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곳에서는 의회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카탈루냐 자치구 등에서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 또한 느껴진다. 그러므로 ‘전환’은 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집, 광장, 의회. 이 세 공간에서 동시성과 교차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되는 전환의 녹색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녹색당은 균열과 반목을 뛰어넘어 전환의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막고, 파괴되는 생태 현장을 지키며, 핵발전과 핵무기를 없애고,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며,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